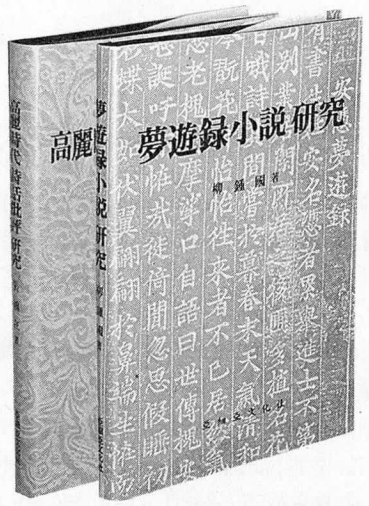
한국 고전문학의 두 연구성과

蘇在英
숭실대 교수·국문학

高麗時代詩話批評研究
張鴻在 저
아세아문화사/A5신/262면/6000원

夢遊錄小說研究
柳鍾國 저
아세아문화사/A5신/192면/4500원



고려 패관문학의 총체적 연구

李奎報의 「白雲小說」에는 이런 詩話가 있다. 김부식과 鄭知常이 서로 사이가 좋지 못했는데, 한번은 정지상이 지은 시를 김부식이 자기의 시로 삼으려 한 것이 화근이 되어, 지상은 부식에게 피살된 바 되었다. 부식이 어느날 봄을 소재로 '柳色千絲綠 桃花萬點紅'이란 싯귀를 지었더니 갑자기 음귀가 된 지상이 나타나 부식의 뺨을 치며 '千絲·萬點'을 누가 세어 봤느냐고 힐난하며, '柳色絲絲綠 桃花點點紅'으로 수정해 주었다. 부식은 이런 수모를 당하고, 한번은 절에 가서 칙간에 앉아 있는데 정지상의 귀신이 찾아와 부식의 음낭을 움켜쥐고 시비를 걸어와 욕설로 대꾸를 하다가, 결국 부식은 음낭이 빠져 뒷간에서 죽은 바 되었다고 하였다. 이 대문은 결국 詩와 話로 구성되어 있다. 또 같은 백운소설 첫머리에는, 을지문덕이 수나라 장수 于仲文에게 준 시를 들고, 이 시가 귀법이 奇高하여 화려하게 꾸민 흔적이 없으니 어찌 후세의 부화한 자가 미칠 바이겠는가라고 논평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詩와 評(비평)이 함께 곁들여 있다. 한편 李仁老의 「破閑集」에 보면, 필자가 智異山의 청학동을 소문만 듣고 찾아들어갔다가 그 이상향 청학동을 끝내 찾지 못하고 바윗돌에 시 한편을 써남기고 돌아온 옛일을 회상하고, 陶淵明의 「桃花源記」를 논평하고 그 도원을 찾으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劉子驥같은 선비를 얻어 한번 다시 그 이상향을 찾아보아야 되겠다는 소망을 말하고 있다. 이 경우는 詩話批評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예다.

張鴻在교수의 「고려시대시화비평연구」는 고려 시대의 시화집인 이규보의 「白雲小說」 이인로의 「破閑集」 최자의 「補閑集」 이제현의 「櫟翁稗說」 넷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른바 고려시대 패관문학의 총체적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들 四書에 나타나는 시 이외의 374화의 내용을 저자는 文話·史話·說話 등으로 구분하고 그 가운데서 이 책의 연구대상이 되는 詩話를 282화(백운소설 31·파한집 83·보한집 128·역옹패설 40)로 추출하여, 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시화비평을 논하고 있다.

먼저 「시화비평 전개의 배경」에서는 이러한 비평이 탄생하게 된 당시 고려사회의 사회적 문학적 배경, 그리고 당대의 시풍과 편자들의 문학수업에 관한 주변적인 사실들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언급하고 있다. 「시화비평의 유형」 항목에서는 이를 직접비평·간접비평·비교비평·대화비평의 네 항목으로 분류 논술하고 있다. 직접비평은 어떤 인용도 없이 평자가 직접 자신의 말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를테면 〈정지상의 시는 語韻이 맑고 화려하며 싯구의 격식이 호일하여 시를 읽으면 답답한 가슴과 흐릿한 눈을 씻은듯 맑게 해준다(보한집)〉등의 평이 그것이다. 간접비평은 타의를 적용시키는 방법(인용 등)이며, 비교비평은 시와 시, 작가와 작가를 서로 비교하는 방법이며, 대화비평은 두 사람 이상의 대화형식으로 진행되는 비평의 방식이다. 저자는 이러한 내용을 통계숫자상으로 제시하여 비평서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다음은 「어의론」 「용사론」이다. 어의론은 다시 용어론·용의론·어의창신론·어의병용론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고려시대 시화비평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거론되는 것으로는 用事·新意 등의 논의다. 「용사」는 형식적 측면에서, 「신의」는 내용적 측면에서 관찰되어 형식과 내용의 대립 또는 겸통 등으로 고려시대의 시화비평이 파악되어 왔다. 흔히들 이인로의 용사론, 이규보·최자의 신의론, 이제현의 절충론 등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비평의 핵심이 되는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대하여 논자는 매우 체계있는 이론과 통계를 제시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기상론」을 통하여 氣의 선천설·후천설을 분류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효용론」에서는 문학의 고유 기능인 敎訓과 快樂으로 분류하여 이를 논평하였으며, 권말에는 「고려시대 시화일람표」를 자세하게 덧붙여 고려시화의 전체적 윤곽을 파악할수 있도록 하였다.

「고려시대 시화비평연구」는 저자의 학위논문을 다소 보완하여 출간한 것으로, 고려조 시화의 총체적 성격을 파악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워낙 비평용어의 생경성 때문에 이에 접근하려면 시화 자체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꿈에 가탁한 역사비판

꿈은 우리 문학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실제로 이룰 수 없는 일들도 꿈속에서는 얼마든지 성취될 수 있다. 그러므로 꿈은 작가에게는 자신의 願望표출로 형상화되어 하나의 작품으로 창작될 수 있다. 당대의 작품 「枕中記」나 「南柯太守傳」은 夢遊모티프의 근원적 작품이라 할 만하다. 「침중기」는 밥을 짓는 잠간 사이에 일생의 榮枯를 꿈꾸어 삶이 환상으로 보는 꽃과 같음을 깨닫게 한다는 寓意적 작품이다. 「남가태수전」 역시 작자가 꿈에 남가군을 다스리는 태수가 되어 온갖 영화를 누리다가 꿈을 깬 후 자신이 낮잠을 잤던 느티나무 아래 개미가 뚫어놓은 동굴 속에서 꿈의 남가군을 확인한다. 이와같이 자신이 바라는 세계를 꿈속에서 실현해 보려는 작자는 자연히 현실에 불평이 많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 바꾸어 말하면 자아와 현실의 순응 가운데서는 훌륭한 작품이 창작될 수 없고, 자아와 현실의 대립과 끊임없는 갈등 가운데서만이 훌륭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이 곧 작품으로 창작된다는 말이다.

꿈을 형상화한 작품은 대개 세 가지의 형태를 빌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금오신화」의 「남염부주지」나 「용궁부연록」처럼 현실과의 한계가 분명치 않은 가운데서 이른바 영혼유람의 형태로 기술된 '전기 소설류'이고, 둘은 소위 '몽자류'라고 하여 「구운몽」 「옥루몽」 등과 같이 환몽의 세계를 그린 작품들이며, 셋은 「몽유록」이란 명칭이 붙은, 꿈을 꾸고 꿈을 깨는 꿈과 현실의 틀이 분명한 작품들이다. 그 가운데서도 몽유록 소설은 현실과 꿈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소설의 양식적 서술이 명확하고, 寓意的 서술을 통하여 꿈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작자의 창작 의도를 이러한 우의적 의미와 결부하여 해석해야만 작품의 올바른 이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柳鍾國교수의 「夢遊錄小說研究」는 바로 이 몽유록이 갖는 독특한 양식의 서술에 역점을 두고 있다. 먼저 양식의 구성원리를 설명하고, 그러한 원리 가운데 꿈의 내용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수용되고 형상화되어 있는가를 매우 의욕적으로 논술하고 있다. 「양식의 구성원리」에서는 작자의 체험기록의 가탁, 동기부여, 그리고 양식의 기본구조에 대하여 서술하고, 「문학적 형상화」에서는 꿈의 구체적인 문학적 수용양상을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서 설명한 후 寓言의 수용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본격적 작업인 「작품구조의 의미분석」에 들어가서는 이를 작품마다 「서술구조」와 「의미분석」으로 나누어 몽유록 중 대표적 작품 10편을 선정하여 유형별로 논술하였다.

첫째, 현실비판 지향의 작품으로는 「達川夢遊錄」 「皮生冥夢錄」 「江都夢遊錄」 「元生夢遊錄」을 들고 있다. 앞의 두 작품은 임진왜란과 관련된 작품으로 역사적 사건들을 작자 나름대로 비판한 작품이며, 세번째 작품은 병자호란의 역사적 비판, 그리고 마지막 작품은 단종과 세조의 역사적 정변을 비판한 작품이다.

둘째, 이상추구 지향의 작품으로는 「大觀齋夢遊錄」 「泗水夢遊錄」 「金華寺夢遊錄」 세 작품을 들고 있다. 앞 작품은 현실적 권력왕국에 대하여 최치원을 천자로 한 이상적 문장왕국을 그리고 있으며, 다음 작품도 공자가 왕이 된 유가의 이상적 몽중왕국을 설계한 작품이다. 마지막 작품 역시 유가의 패도에 대한 왕도를 실현한 작품으로 중국 역대 창업주들을 등장시켜 이상국을 추구하고 있다.

세째, 삶의 勸戒를 지향한 작품으로는 「安憑夢遊錄」 「浮碧夢遊錄」 「琴生異聞錄」을 들고 있다. 이들 작품도 자신의 생애나 역사적 사건을 몽중사로 다루고 있으나, 풍자나 이상추구의 성격보다는 자신의 삶을 권계하는 교훈적 측면에서 창작된 것이 특징이다.

끝으로는 위에서 논술한 열 작품을 포괄하는 양식적 성격을 귀납하고, 몽유록의 문학적 가치를 논술하였다.

지금까지 몽유록소설을 다룬 글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이 책은 몽유록연구의 종합적 성과를 바탕으로 '양식의 구성원리'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저자의 연구성과를 높게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몽유류의 전의·영향관계, 몽자류와 몽유록 등 꿈을 소재로 한 내부 장르간의 분석논리를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남는다.